
 인천광역시		<b>보 도 자 료</b>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
		배포일자	2022년 10월 13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 당 자	• 대기정책팀장 윤은주 ☎440-3501 • 담당자 안세영 ☎440-3504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소재 4개 국가공사, 대기오염물질 감축위해 844억 시설 투자

- 인천사·공항공사·가스공사·항만공사·매립지관리공사, 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 공유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0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가스공사, 인천항만공사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된 「인천클린공사협의회」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관내 4대 공사와 대기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2016년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.

지난해 4대 공사는 총 704억 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 질소산화물(NOX) 213톤, 황산화물(SOX) 108톤, 총먼지 16.4톤 및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(CO2) 146,780톤 등 큰 폭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.

인천시는 이 같은 4개 공사의 투자 노력이 2016년 26 $\mu$ g/m<sup>3</sup>이었던 초미세먼지(PM2.5) 연평균 농도를 2021년 20 $\mu$ g/m<sup>3</sup>로 개선되는데 크게 기

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번 개최된 간담회는 올해 각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공유하고,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마련됐다.

이에, 올해 4대 공사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총 844억 원을 시설개선  
에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우선 ▲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항 내 차량과 장비 배출가스 저감,  
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설치 등에 약 95억원 투자해 미세먼지를 저  
감하고 있으며, ▲인천항만공사는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·개선 및  
태양광발전시설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약 76억원을 투자해 항만  
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. 또한 ▲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비산  
먼지 관리, 대기오염·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관리 등에 약 6  
51억원을 투자해 비산먼지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,  
▲한국가스공사는 해수식 기화기 성능개선 및 선박용 저황유 연료전  
환 관리 등에 약 22억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 감축할 계획이다.

김달호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“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공공  
기관의 노력과 협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” 며 “지역의 대기질  
관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동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개선  
사업을 적극 실행해 쾌적한 인천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  
라” 고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